

시흥, 시민에게 길을 묻다

시흥시민 원탁회의

시흥의 100년 미래 비전을 만드는 300인 토론

2013. 10. 5



「미래 시흥100년」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장마를 뒤로하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이 땅에 ‘시흥’이라는 이름과 인연을 맺은지 100년이 된 해입니다.

‘2013년, 시흥100년의 해’를 시작으로 무엇보다 다가서는 시정을 통해 시민이 중심인
행복공동체로서의 도시, 그리고 숨어있는 역사 찾기 등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흥만이 가진
문화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도시브랜드를 키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정의 핵심 가치는 ‘시민’입니다.

시민의 제안과 참여로 일구는 도시를 지향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시흥은 개간과 간척의 산실이라고 이 땅의 역사는 말합니다. 선조들이 삶의 터로 개척해 온 그 열정과
땀방울의 결실이 오늘을 일구었듯이 새로운 미래 시흥100년의 결실 또한 그 누구도 아닌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市는 내일로 향한 ‘희망찬 시흥’을 가꾸기 위해 시민에게 나아갈 길을 청해 듣고, 이를 나침반으로
삼고자 「시흥, 시민에게 길을 묻다. 시흥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100년 후에도 살기 좋은 시흥”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보존해야 할 가치, 미래를 위한
협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흥의 멋진 미래상을 그려보는 원탁회의에서 시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2013. 9.

시흥시장 김 윤 식

Contents

시흥,
시민에게 길을 묻다
시흥시민 원탁회의

I. 시흥시민 원탁회의 개요	2
II. 시흥시민 원탁회의 소개	4
III. 토론의제	10
IV. 부록 : 시흥시 및 북부권역 알아보기	14



발행한 곳 | 시흥시청
제작 · 편집 | (재) 희망제작소
발행일 | 2013년 9월 27일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 시흥시청

전화 | 031) 310-3017

홈페이지 | <http://sh100th.siheung.go.kr>

이 자료집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원탁회의 당일에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시흥시민 원탁회의 개요

1. 행사개요

2. 일정

3. 오시는 길

I. 시흥시민 원탁회의 개요

1. 행사개요

가. 행사명 : 시흥시민 원탁회의 “시흥, 시민에게 길을 묻다”

나. 참가범위 : 시흥시 각 권역별 시민 300명

※ 권역구분 : 지리적 위치 및 생활권 고려

북부권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매화동
남부권	군자동, 정왕동
중부권	신현동, 목감동, 연성동, 능곡동

2. 일정

북부권	2013. 10. 5 (토) 오후 2시 가스안전공사 체육관
남부권	2013. 10. 12 (토) 오후 6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마당
중부권	2013. 10. 19 (토) 오후 6시 시흥시청 마당

3. 오시는 길

가스안전공사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대야동332-1))



II. 시흥시민 원탁회의 소개

1. 시흥시민 원탁회의란?
2. 시흥시민 원탁회의 진행 과정
3. 시흥시민 원탁회의 특징

II. 시흥시민 원탁회의 소개

1. 시흥시민 원탁회의란?

시민 원탁회의의 ‘시흥, 시민에게 길을 묻다’ 는 시흥의 과거와 미래를 시흥 시민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이자, 화합의 장입니다.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시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진단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 수 있는 100년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가. 시기적 배경

2013년은 이 땅이 시흥으로 불려진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이라는 상징적 숫자는 긴 호흡으로 시흥을 돌아보며, 시흥의 역사와 지역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에 적합한 시기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 사회적 배경

시흥은 도·농·산업 복합지역으로서 20년 만에 인구가 4배나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배곧 신도시, 시화MTV개발 사업 등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보존해야 할 가치, 미래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낼 때 입니다.

다. 환경적 배경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규모 시민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되어 세계 각지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민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숙의 과정을 이끌어 낼 것 입니다.



미국 뉴욕市 ‘도시의 목소리 듣기 (Listening to the City)’ 원탁토론

▲ 시기 : 2002년 6월

▲ 규모 : 5,000여명

▲ 주제

- 9.11 테러로 붕괴된 지역의 재건 방향 및 그와 관련한 토지 문제 및 지구구획 문제해결

▲ 결과

- 상업지구 건설로 결정되었던 재건축 방향이 추모공원 건설과 시민들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변경됨

미국 19개 도시 연합 원탁토론 사례

▲ 시기 : 2012년 6월

▲ 규모 : 19개 도시에 각기 모인 3,500여명의 시민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토론

▲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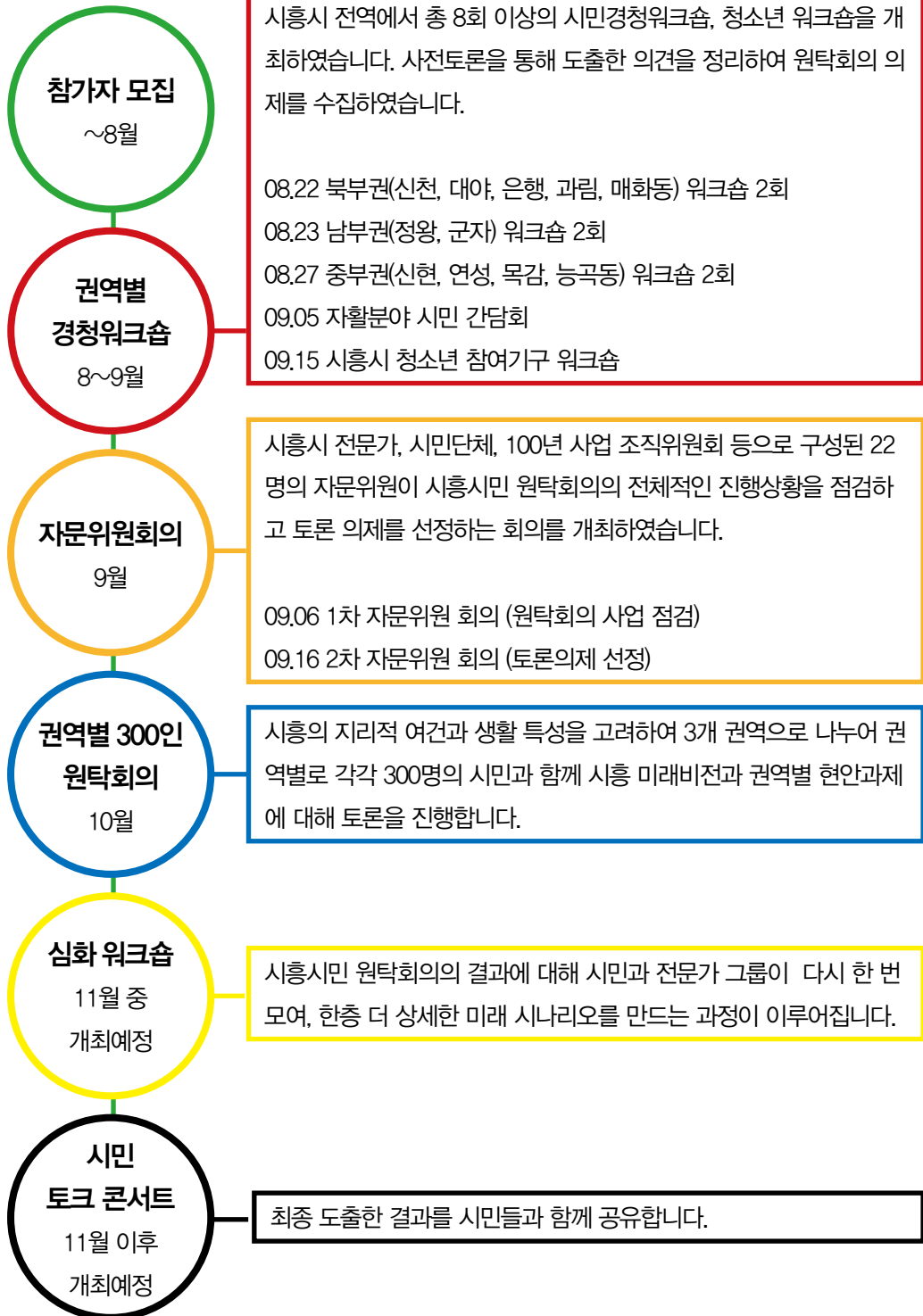
- 미연방의 예산과 재정적자 위기

▲ 결과

- 토론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책임성과 개혁위원회’ 와 의회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산 감축 TFT에 제공되어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함



2. 시흥시민 원탁회의의 진행과정



3. 시흥시민 원탁회의 특징

**참여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미래 시흥 100년의 나침반을 만들어 시흥이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1. 한 테이블에 열 명씩, 30개의 원탁에서 동시에 토론이 진행됩니다.
2. 참가자 발언은 실시간으로 입력되어 중앙 컴퓨터로 모여 주제별로 분류됩니다.
3. 분류된 의견은 참가자의 전자 투표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 토론원칙

- 1) 시간을 지켜주세요.
- 2) 상대방의 이야기를 인정해주세요.
- 3)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합의된 결과를 존중해 주세요.

▲ 원탁회의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내 용
사전등록	1:30~2:00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해 주세요
개회식	2:00~2:20	국민의례, 토론소개, 개회선언
권역별 의제 토론	2:20~3:30	입론 → 공유 → 상호토론 → 투표
공통 의제 토론	3:30~4:40	입론 → 공유 → 상호토론 → 투표
폐회식	4:40~5:00	브레인라이팅, 총평, 폐회선언

▲ 토론 흐름



01 입론

원탁에 앉은 인원 전원이
의제에 대한 의견을 한 사람당 2
분동안 돌아가며 발언합니다



02 의견 공유

각 테이블에서 나온
발언이 전산처리되어
전면의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현
장에서 공유 됩니다



03 상호 토론

테이블별 의견을 공유하며
자유토론을 진행합니다.



04 현장 투표

상호토론의 결과를 공유하고 무
선투표기를 사용하여 토론내용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합의를
도출합니다.

Ⅲ. 토론의제

1. 토론의제 도출과정

2. 원탁회의 토론의제

III. 토론회제

1. 토론회제 도출과정

시흥시민 원탁회의의 의제는

총 8차례에 걸쳐 231명의 시민이 참가한 시민경청워크숍과 각종 시 정책 및 현황자료를 분석한 문헌조사, 시흥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시흥의 현안과제와 미래를 위한 토론 주제를 선정해 시흥의 지역리더 및 전문가, 100년 사업 조직위원 등이 참가한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시흥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민들
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
2. 미래에 물려주고 싶은 시흥을 위한 대안

우측의 도표는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중심으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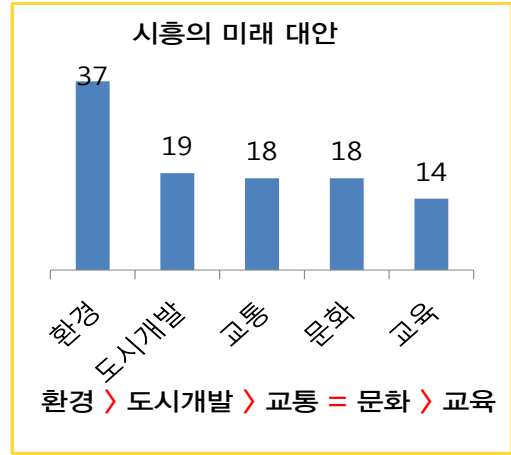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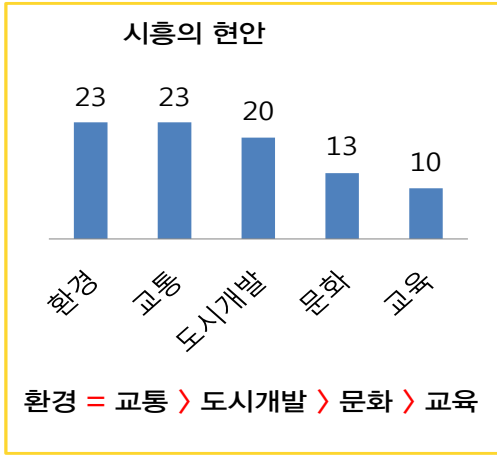
주제별로는

환경 > 교통 > 도시개발 > 문화 > 교육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의 현안(문제점)과 미래(대안)을 각각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환경, 교통, 도시개발, 문화, 교육에 대한 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 권역별 분석

권역별 토론회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권역의 장점 · 단점 · 기회 · 위기 요인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북부지역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점

- 소래산, 신천천, 호조벌(자연환경)
-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친환경 도시
- 청소년 수련관, 평생학습센터 등 시설이 많음
- 정주의식이 높음

기회

- 풍부한 관광자원
- 가스안전공사 부지 활용
- 신천, 대야역 건설
- 은계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 편의시설 확대

약점

- 교통이 불편
- 자녀의 교육환경이 불만족
- 미흡한 도시 개발 수준

위험

- 계획적이지 못한 도시개발(난개발)
- 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
- 원도심의 슬럼화
-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미지
- 베드타운화 되어 도시 활력이 떨어짐

2.원탁회의 토론회제

원탁회의에서는 총 2개의 주제를 두고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100년 뒤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시흥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공통의제(1개)와 거주하고 계신 권역(북부, 중부, 남부)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권역별 의제(1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권역별 경청 워크숍, 지역 전문가 의견, 시흥시 정책, 지역 조사 등을 종합하여 시흥시민 원탁회의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토론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의제〉

**미래 100년을 위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흥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시흥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100년 뒤의 시흥은 어떤 도시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시흥시민 원탁회의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미래상을 그려 봅니다. 100년 대계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권역별 의제: 북부권역〉

시흥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흥 북부권역(대야, 신천, 은행, 매화, 과림동)은 원도심 지역입니다.

정주 기간이 중부나 남부 권역에 비해 가장 길며, 이웃과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강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시청 이전 이후 북부권역의 활력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경제, 문화, 복지, 도시 인프라 노후 및 확충 등 각종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VI. 부록 : 시흥시 및 북부권역 알아보기

1. 시흥시 알아보기
2. 시흥의 자산 : 무엇이 시흥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3. 시흥의 도전 : 시흥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4. 북부권역(대야, 신천, 은행, 매화, 과림동) 알아보기
5. 북부권역 원도심의 어제와 오늘

1. 시흥시 알아보기

▲ 면적

도시 총 면적은 134km²이다.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이 13.3%, 상업지역이 0.83%, 공업지역이 8.35%, 녹지지역이 73.97%, 미지정 3.55%로 이루어져있다.

▲ 인구

인구는 156,945세대, 421,192명이고 그 중 23,293명이 외국인이다. (2013.6월 기준) 시흥의 인구는 시 승격 당시 10만 여명 수준이었으나 시화공단 완공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4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7년간은 41~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흥시의 인구증가 추세

1989년	103,088명 (시 승격)
1996년	176,599명 (시화공단 완공 후)
2006년	403,648명 (40만명 돌파)
2013년	421,192명 (2013년 현재)

▲ 시정목표 및 방침

목표 :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

가. 성장하는 도시

친환경적 도시개발과 교통망 확충, 교육 · 문화 · 관광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 서남부권 해양녹색성장 거점 육성

나. 배려하는 도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

다. 참여하는 도시

시정의 주체로서 적극적 시정참여는 물론, 공동선을 우선하며 책임을 다하는 시민정신 발현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

라. 신뢰받는 시정

투명하고 깨끗하며 일 잘하는 시정, 찾아가는 생활공감 행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과 만족도 제고

▲ 평균 거주 기간

시흥 시민의 평균 거주 기간은 12.2년이다. 매화, 목감, 과림동의 주민들이 16.6년으로 가장 오래 거주하고 있으며 정왕동 주민들이 10.9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거주 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3년으로 가장 짧은 주거 기간을 갖고 있다.

▲ 시민 평균 연령

시흥 시민의 평균 연령은 33.1세로 경기도 평균인 35.3세 보다 적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전국 평균인 11% 보다 낮은 6.9%로 시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 중의 하나이다.

▲ 가구 구성 형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30.6%로 전국 평균인 24%보다 높다. 정왕 3동의 경우 그 비율이 60% 를 넘고 있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2010년 기준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여 2005년 대비 39%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1년 기준 주택 보급률은 85.6%이고 종류별로는 아파트가 60%, 단독 주택이 24.5%, 다세대 주택이 14%, 기타 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기타 주요 통계

기업체 수 8,914개 대기업 6개 / 중기업 171개 소기업 8737개 기업체 수 광역시 수준	학교현황 77개교 초등 36 / 중등 21 / 고등 15 /대학(원) 5개교 대학진학률 74% (경기도 평균 71%)	복지시설 59개 노인, 여성, 장애인 시설 인구대비 비율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의료기관 338개 인구 1만명당 의료인력 수 48.35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70% 수준	문화시설 14개 인구 10만명 당 3.32개 (전국 평균 3.51개)	도시공원면적 6.64m²/인 경기도 평균 11.7m ²

2. 시흥의 자산 : 무엇이 시흥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천혜의 자연환경

소래산, 관곡지, 갯골 생태공원, 연꽃 테마파크 등 내륙의 생태자원부터 월곶 포구, 오이도 등 해양 관광자원까지 시흥은 다양한 자연 환경을 담고 있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시흥 미래 성장 동력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과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시흥의 자연 환경은 그 자체로도 보존 가치가 있지만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과 같은 관광 자원화를 통해 시흥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첨단 산업도시

지금 시흥에서는 군자 배곧 신도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시화공단 완공으로 인해 산업도시로서의 기틀을 갖춘 후, 시흥은 급속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의료산업단지, 첨단 벤처 기업 유치 등과 같은 시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경기 서남부 교통 허브

시흥시 지역 내 연결망 부족에 따른 교통 불편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에 비해 타 도시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부천, 인천, 안산, 광명 등과 접해 있는 시흥은 현재 경기 남부의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개통과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그 기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평생학습도시

시흥은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마을 단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평생 학습과 주민자치가 하나로 연결되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도시

시흥은 전통적으로 자활정신이 뿌리내린 도시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신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연결되어 소외 계층이 자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각종 자활 사업과 나눔의 경제를 실천하는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말합니다. 시흥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을 비롯해 여성 취업과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시흥의 도전 : 시흥의 미래를 위해 해결 해야 할 과제들

환경과 공존하는 도시 개발

현재 시흥에서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배곧신도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물론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토목사업, 보금자리단지 택지 주거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 성장을 위해 개발은 필수적이지만 환경 역시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거나 되돌리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갈증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문화시설

문화적 풍요로움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시흥의 문화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40만 인구 시흥의 영화관 수는 2개에 불과하고 콘서트 등이 가능한 공연장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적 욕구를 채우고 생활 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부천, 안산, 안양 등 타 도시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교통망 확충

시흥시 내부 교통망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이동의 불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권역별 단절을 초래하고 행정 및 문화 서비스 혜택의 사각 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이 많은 불편을 해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자본과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시흥을 떠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의 기회와 질입니다. 교육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만족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시민들은 여전히 시흥에 좀 더 수준 높은 교육 기관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계층별, 대상별로 시흥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춰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소통과 통합

시흥은 행정 구역의 변화가 잦았고, 권역별로 생활환경이 상이하여 하나의 시흥 또는 시흥인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권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하나 된 시흥의 힘이 미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시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4. 북부권역(대야, 신천, 은행, 매화, 과림동) 알아보기

▲ 면적

대야, 신천, 은행, 매화, 과림동을 포함하는 26.9km²의 지역이다. 이는 시흥시 전체 면적 대비 20%의 넓이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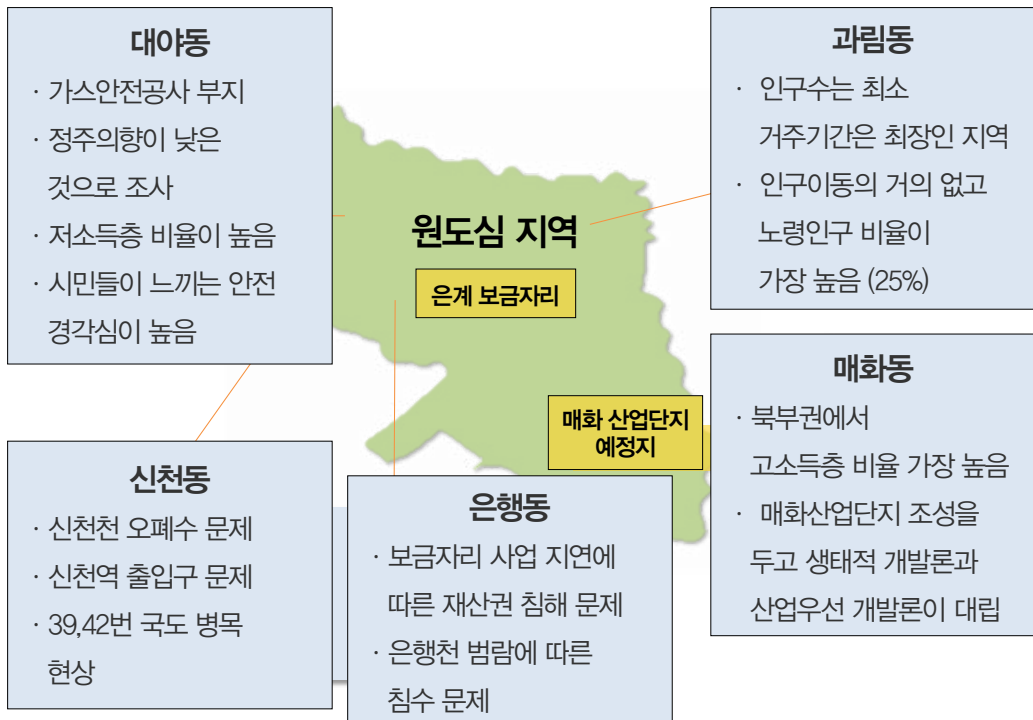
▲ 인구

인구는 129,286명으로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30%가 북부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 특징

북부권은 인천, 부천, 광명등과 경계가 맞닿아 있으며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국도 제 39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로서 시흥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흥에서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긴 지역이며, 노령 인구의 비율도 가장 높다.

▲ 북부권역 주요이슈



5. 북부권역 원도심의 어제와 오늘



〈2000년 초 북부권역의 항공사진〉

소래 권역이 시흥의 일부분이 된 것은 1973년부터입니다. 부천의 행정 구역이었던 소래면이 시흥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소래 권역은 전통적으로 시흥의 중심지였고 시흥시 승격 이후에는 시청 소재지로서 기능을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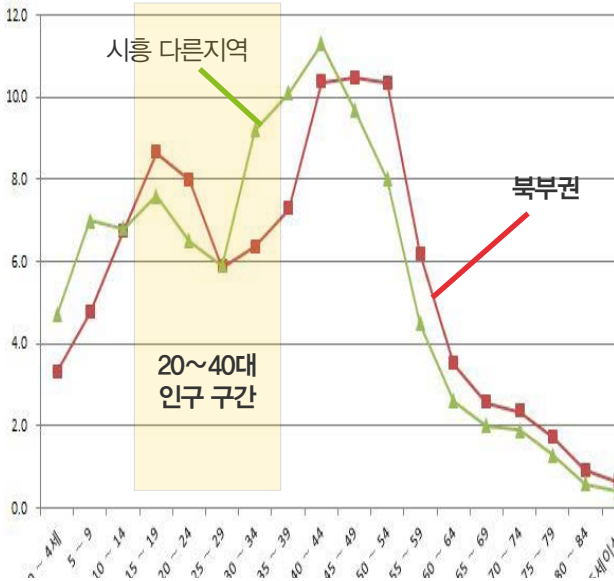
북부권에 변화가 온 것은 시화공단의 완공 및 시청 이전 등으로 산업과 행정의 중심이 각각 남부, 중부권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시흥 곳곳에 신도시지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소래권역은 원도심이 되었습니다.

권역 현황

북부권은 시흥에서 정주기간이 가장 긴 지역으로 평균보다 5년 이상 길며 (17.4년/시흥 평균 12.2년)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11%/ 시흥평균 6.6%).

대야, 신천, 은행 지역은 시흥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60인/ha로 시흥시 평균의 2배)입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연령별 인구분포 그래프



연령별 인구분포비교

시흥 북부권의 연령별 인구와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흥의 인구분포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북부권의 25~40대 인구가 시흥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그 자녀세대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습니다.

도심의 베드타운화

북부권역은 유통 및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며, 산업 지역도 아니기에 서울, 부천, 인천 등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잠만 자며 생활하는 ‘베드타운화’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베드타운화는 주·야간의 도심공동화를 초래하여 지역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출퇴근 교통, 지역 소비 위축 등의 주요 문제를 초래하여 도시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입니다.

원도심 쇠퇴는 해당 마을만의 문제일까?

대야, 신천, 은행은 전형적인 원도심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화와 과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고 아파트 단지나 전원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어 지역 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부권역 내에서도 각 동의 생활수준과 욕구는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고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부권역의 전체적인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화, 복지, 교통, 치안 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부권역의 가능성과 미래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른 도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시흥의 관문

북부권에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국도 제 39호선이 각각 관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야와 신천역을 경유하는 소사-원시선이 완공된다면 시흥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장

북부권은 가장 시흥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흥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은 시민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활 등의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활동에 대한 경험은 이 권역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인구가 많다는 것도 기회 요인입니다. 성장하는 세대가 가장 많이 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스안전공사 부지 활용

시흥시가 매입한 가스안전공사는 총 49,500㎡, 연 건평은 16,500㎡,이고 사무관, 연구동, 체육관 등으로 활용되었던 12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지는 평생학습, 청소년교육,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역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권역이 가진 장점과 단점, 가능성과 기회 요인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더불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 봅시다.

원도심 재생 사례

서울시의 혁신파크

서울시는 2004년 보건복지부로 부터 질병관리본부건물을 매입해 (68,000㎡)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청년일자리 허브등의 기관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시

방직산업 중심도시였던 일본의 가나자와시는 방직산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가 쇠락하기 시작했으나 전통적인 문화자원과 예술을 바탕으로 자생적인 문화도시조성에 성공했다. 가나자와시에는 전통문화와 현대 예술과의 만남과 조화를 테마로 도심부에 우주선과 같은 21세기 미술관을 신설함은 물론 방직공장 창고를 개조하여 24시간 개방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조성하고 지역의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경관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이어졌다.

독일 베를린시의 슈타툼바우지역

베를린은 독일 통일이후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시설 수요 변화 등에 따라 도심 일부가 급격하게 쇠퇴하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슈타툼바우지역도 그 중 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도시재생은 원도심의 노후건물 개선(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유희지역 활용을 통한 청소년 여가· 문화인프라 확충 수변 생태계를 활용한 경관, 산책로 조성 및 수변 상업지역 특화 등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다.



MEMO

MEMO